

기대수명 83.7년으로 역대 최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양호

-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6」의 주요 7개 분야 27개 지표 분석 -
 - 기대수명 83.7년, 회피가능사망률 139.0명으로 상위권 -
 -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OECD 평균(6.1%) 상회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7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현황 등을 공표하였다.

* '23~'24년 통계결과로 건강상태,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 비용, 의약품 시장,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2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인구 10만 명당 139.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08.8명)보다 크게 낮았다.

*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3.2%)은 OECD 평균(12.7%)과 비슷한 수준,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6ℓ)은 OECD 평균(8.3ℓ)보다 낮은 수준이고,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37.3%, 15세 이상)은 OECD 국가(평균 58.7%)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2.6명)가 OECD 국가(평균 4.0명) 중 두 번째로 낮았고,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1,000명당 9.8명)는 OECD 평균(9.7명) 대비 높으나 임상 간호사 수는 OECD 평균(8.8명) 대비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100만 명당 39.3대), 컴퓨터단층촬영(CT)(100만 명당 46.7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MRI 21.5대, CT 31.5대)보다 높고,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5개)도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7.9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9.3%) 대비 다소 낮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1,041.2 US\$ PPP*로 OECD 평균(708.5 US\$ PPP)보다 높았다.

*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Purchasing Power Parity)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9.1%, 시설 2.7%)은 OECD 평균(재가 11.2%, 시설 3.6%)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윤신 정책기획관은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국가 대표 통계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 생산을 확대 제공하여 국민이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OECD Health Statistics 2026 주요 결과
2. OECD Health Statistics 2026 개요
3. OECD Health Statistics 2026 요약표
4. 주요 지표 작성 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선도 (044-202-2220)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은호 (044-202-2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연구위원	신정우 (044-287-8391)



1. 건강 수준

- (기대수명*) 우리나라 기대수명('24)은 83.7년으로 OECD 국가 평균(81.2년)보다 2.5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스위스(84.2년)와는 0.5년의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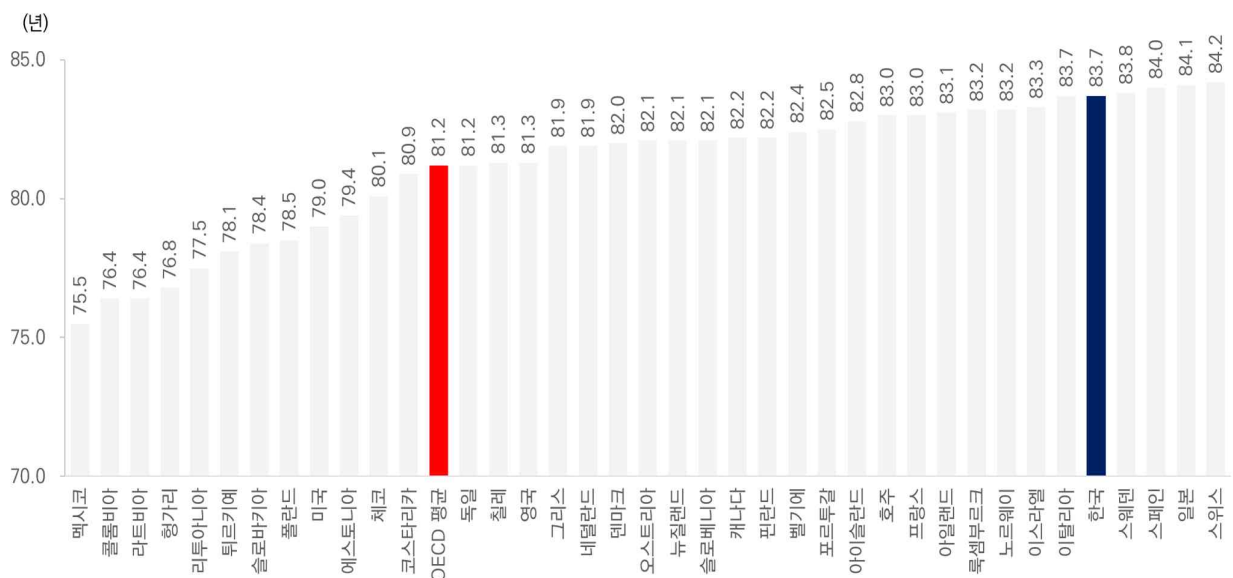
* 기대수명: 해당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 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 기대수명 (2024) >

(단위: 년)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전체	84.1	83.7	81.3	81.2	79.0	75.5	81.2
남자	81.1	80.8	79.4	78.9	76.5	72.4	78.7
여자	87.1	86.6	83.3	83.5	81.4	78.9	83.8



주: 튀르키예는 2023년 수치임.

< 기대수명 추이 (2014~2024년) >



□ (회피가능사망률*) 2023년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인 208.8명보다 낮았다.**

*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예방가능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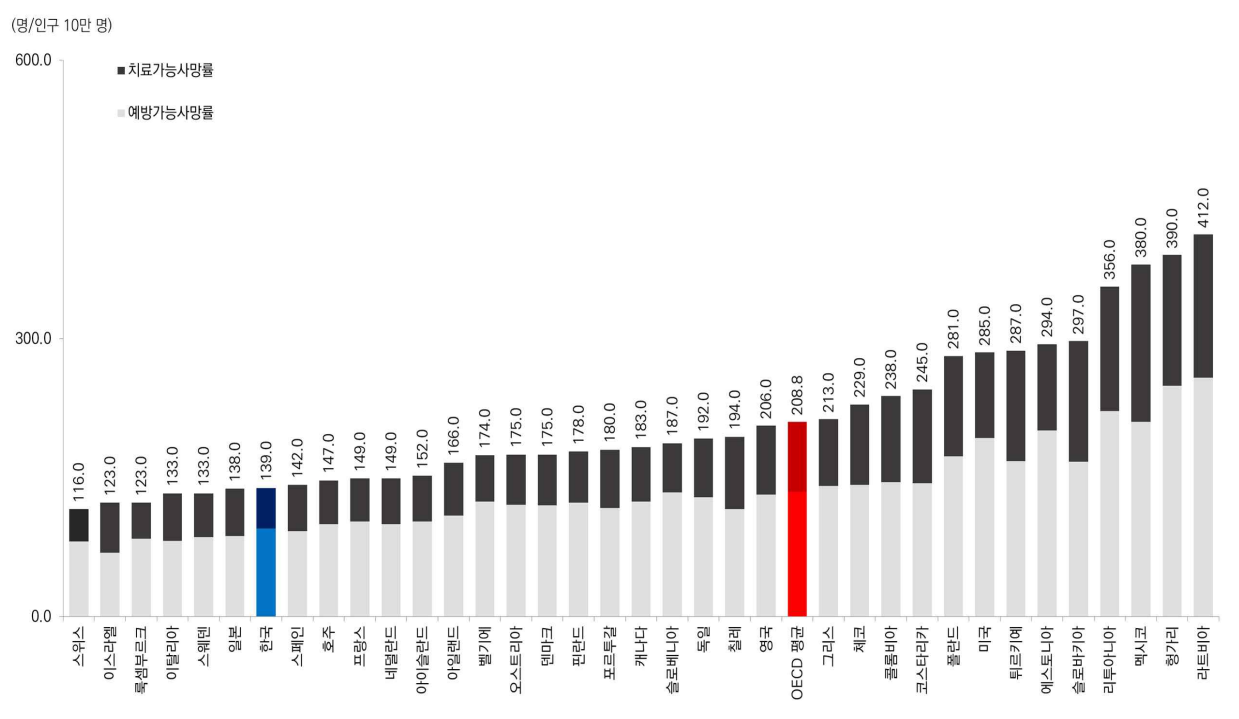
** OECD 공표 회피가능사망률은 2023년 통계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최신 자료임

< 회피가능사망률 (2023) >

(단위: 명/인구 10만 명)

	일본	한국	독일('22)	영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회피가능사망률	138.0	139.0	192.0	206.0	285.0	380.0	208.8
예방가능사망률	87.0	95.0	129.0	132.0	193.0	210.0	133.7
치료가능사망률	51.0	44.0	63.0	74.0	92.0	170.0	75.1

주: 독일은 2022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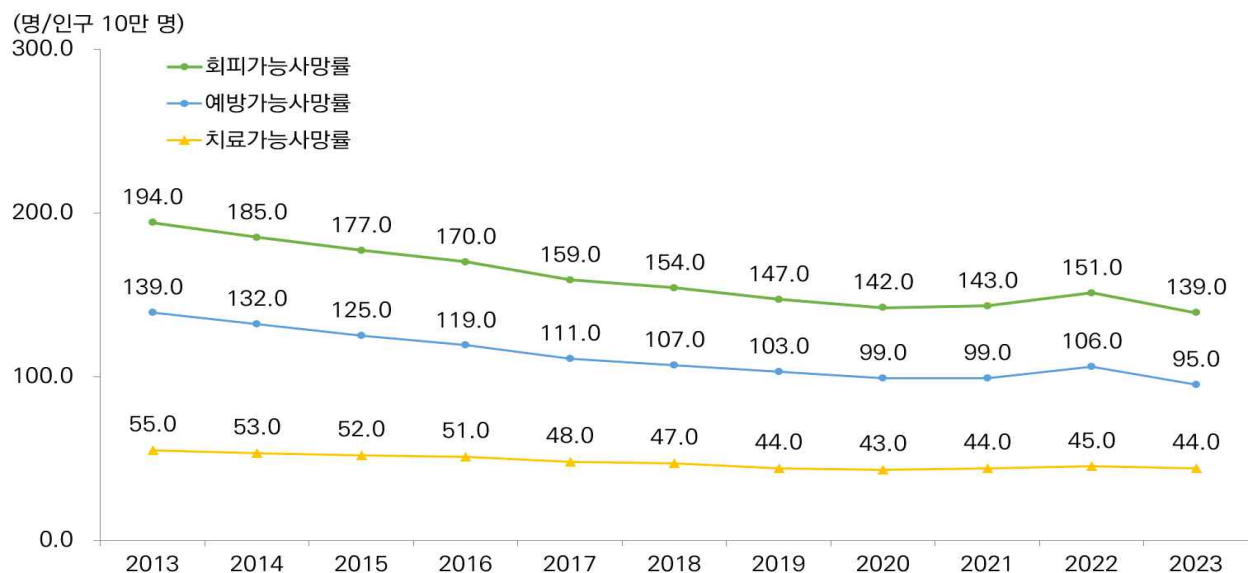
주 1)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22년 수치임.

2) 그래프 수치는 치료가능사망률과 예방가능사망률의 합인 회피가능사망률임.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13년 194.0명, 2018년 154.0명, 2023년 139.0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 연평균 3.3% 감소

< 우리나라 회피가능사망률 추이 (2013~2023년) >



□ (자살사망률) 2023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9.8명('13년) ⇒ 24.8명('23년)

** OECD 공표 자살사망률은 2023년 통계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최신 연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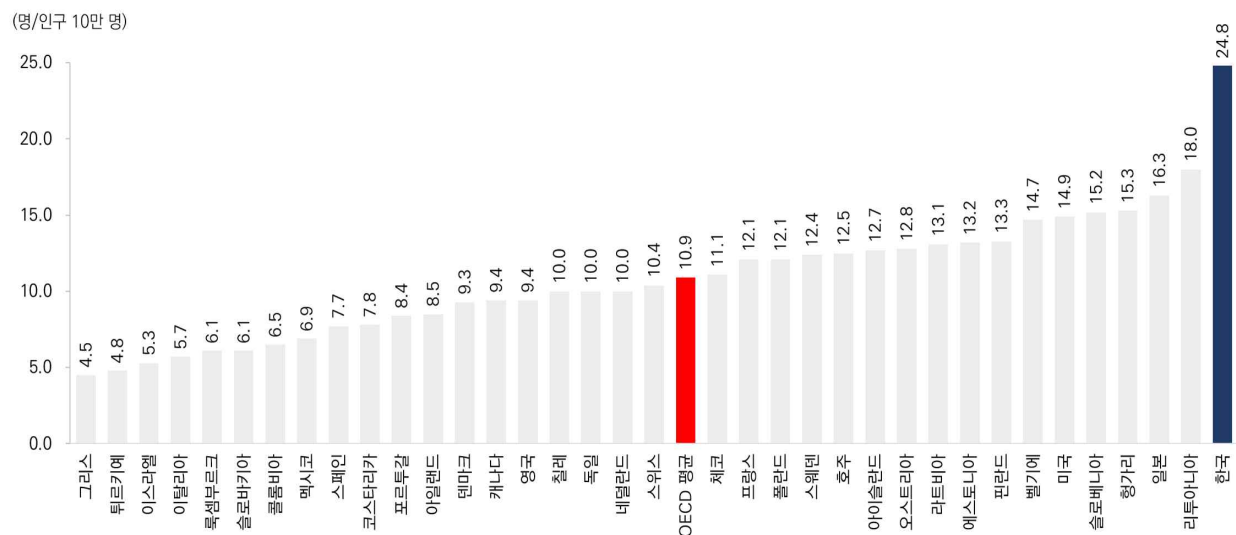
< 자살사망률 (2023) >

(단위: 명/인구 10만 명)

	멕시코	영국	독일('22)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전체	6.9	9.4	10.0	14.9	16.3	24.8	10.9
남자	11.8	14.6	15.8	24.1	22.7	35.9	17.4
여자	2.4	4.6	4.7	6.1	10.2	15.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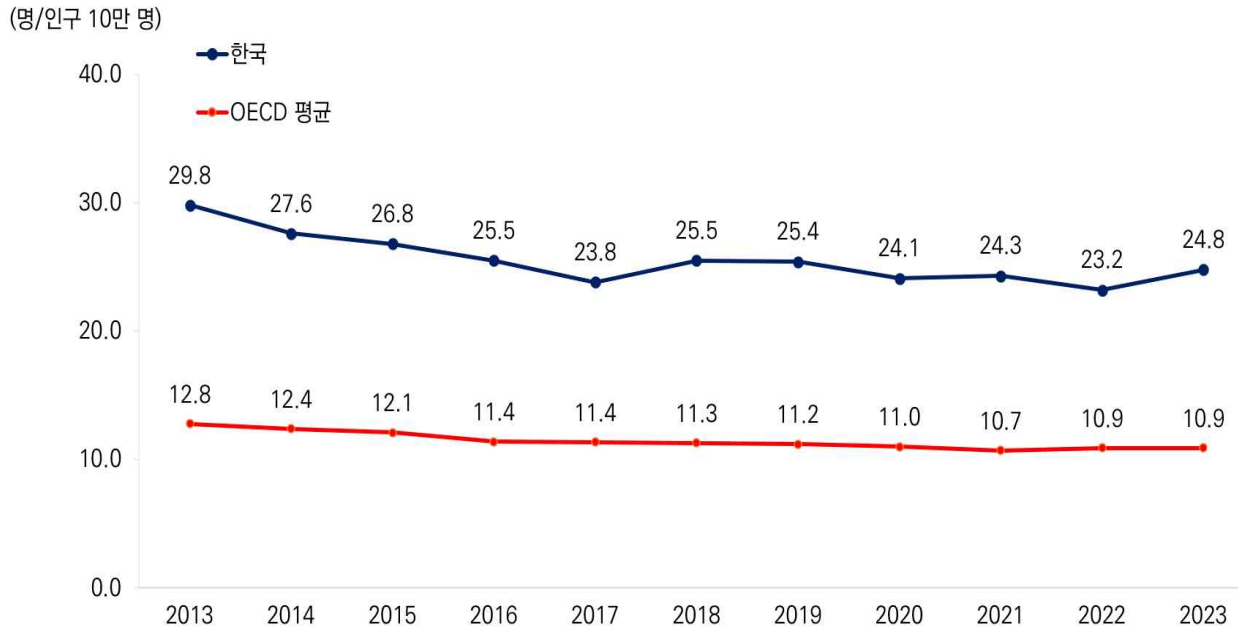
주 1) OECD 자살에 의한 사망률의 경우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로, 국가데이터처 자살사망률(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과 차이가 있음.

2) 독일은 2022년 수치임.



주: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22년 수치임.

< 자살사망률 추이 (2013~202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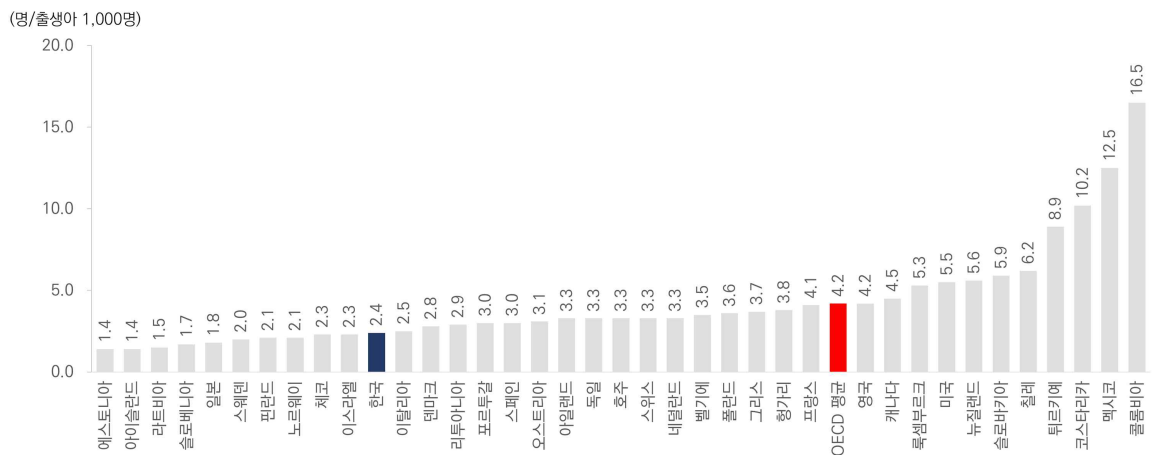


□ (영아사망률) 2024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4.2명)보다 1.8명 낮았다.

< 영아사망률 (2024) >

(단위: 명/출생아 1,000명)

	일본	한국	독일	영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영아사망률	1.8	2.4	3.3	4.2	5.5	12.5	4.2



주: 콜롬비아, 네덜란드는 2021년, 노르웨이는 2023년 수치임

2. 건강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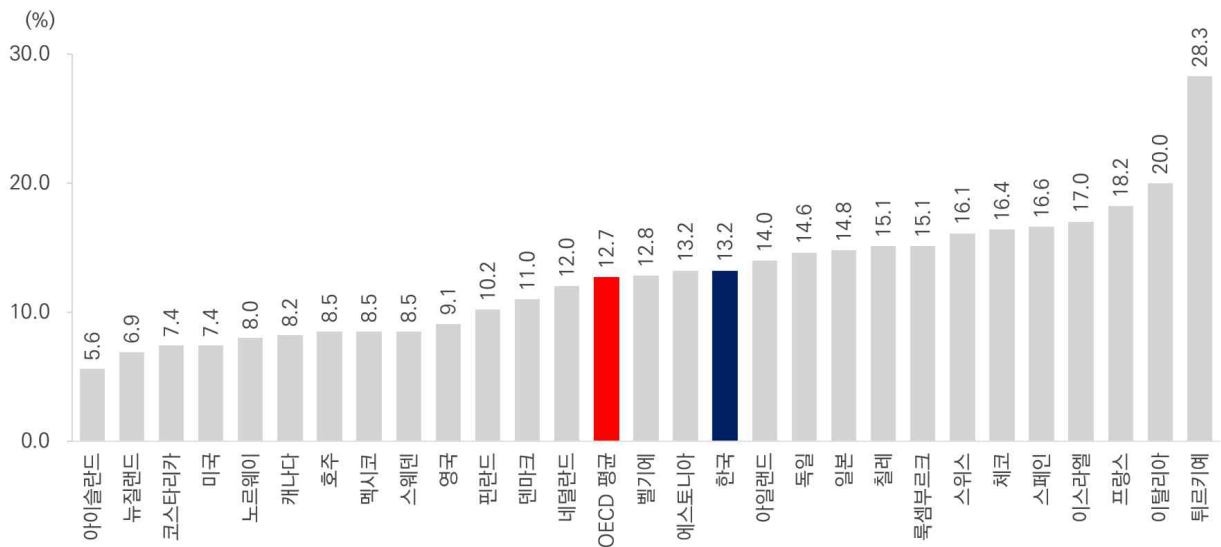
- (흡연율) 2024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3.2%로 OECD 평균(12.7%)에 비해 0.5%p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14년 20.0%, 2019년 16.4%, 2024년 13.2%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흡연율 (2024)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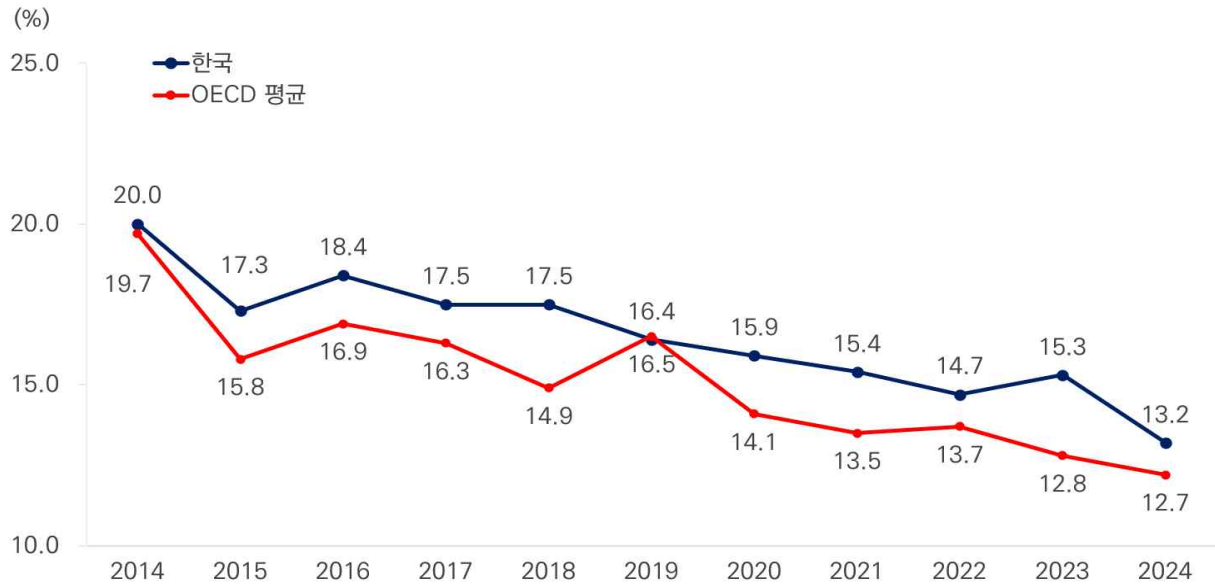
	미국	멕시코('23)	영국	한국	독일('21)	일본	OECD 평균
전체	7.4	8.5	9.1	13.2	14.6	14.8	12.7
남자	8.5	12.3	10.2	23.7	17.5	24.5	15.6
여자	6.3	5.1	8.1	2.7	11.8	6.5	10.0

주: 독일은 2021년, 멕시코는 2023년, 수치임.



주: 독일은 2021년, 호주, 코스타리카, 스위스, 튀르키예는 2022년, 벨기에, 멕시코, 스페인은 2023년 수치임.

< 흡연율 추이 (2014~2024년) >



- (주류 소비량)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2024년 연간 7.6ℓ로 OECD 평균(8.3ℓ)보다 적었다.

* 맥주는 4~5%, 포도주는 11~16%, 독주는 40%의 알코올로 환산

- 주류 소비량은 2014년 8.9 ℓ , 2019년 8.3 ℓ , 2024년 7.6 ℓ 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주류 소비량 (2024) >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ℓ))

	멕시코	일본	한국	영국	미국('23)	독일('23)	OECD 평균
주류 소비량	6.2	6.7	7.6	8.8	9.4	10.2	8.3

주: 미국, 독일은 2023년 수치임.

-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2024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의한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은 37.3%로 일본(25.3%)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 OECD 기준: BMI(체질량지수=몸무게(kg)/키(m²)) 25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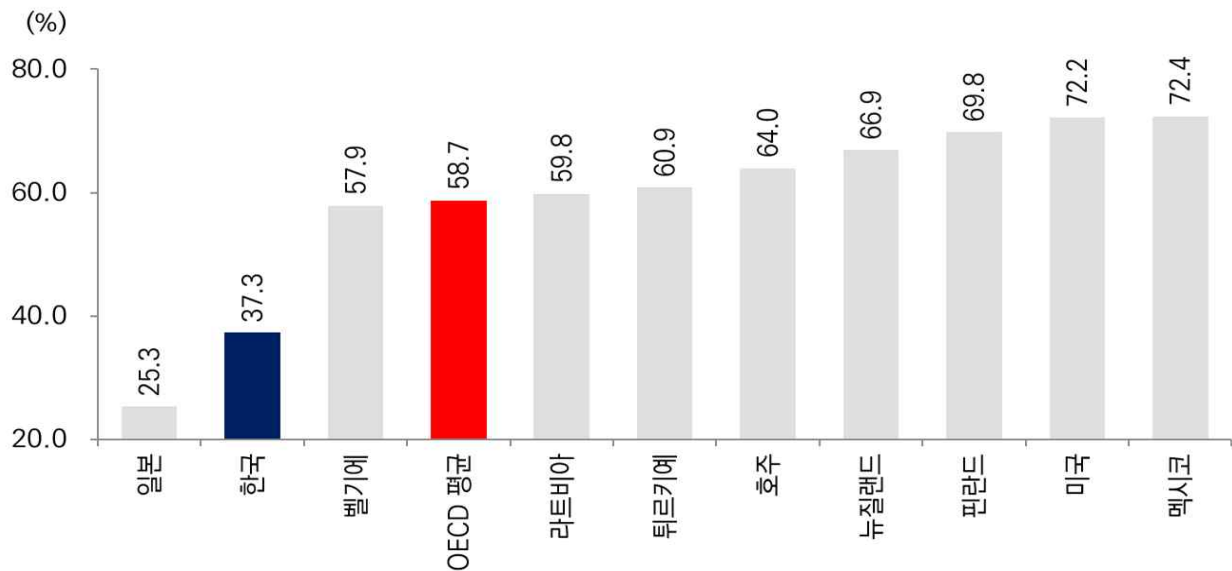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은 2014년 30.8%, 2019년 33.7%, 2024년 37.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2024)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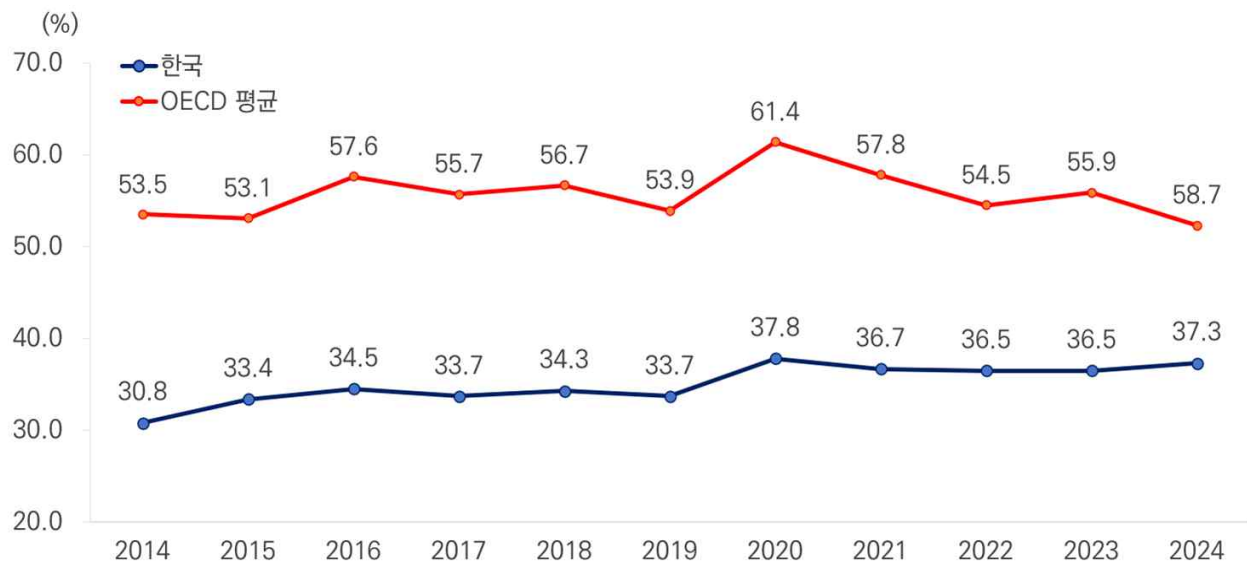
	멕시코	미국('23)	호주('22)	벨기에('23)	한국	일본	OECD 평균
전체	72.4	72.2	64.0	57.9	37.3	25.3	58.7
남자	71.2	74.8	69.2	63.2	46.6	32.4	62.2
여자	73.5	69.5	59.0	52.9	28.0	19.3	55.3

주: 호주는 2022년, 미국, 벨기에는 2023년 수치임.



주: 호주, 핀란드는 2022년, 벨기에, 튀르키예, 미국은 2023년 수치임.

<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추이 (2014~2024년) >



3. 보건의료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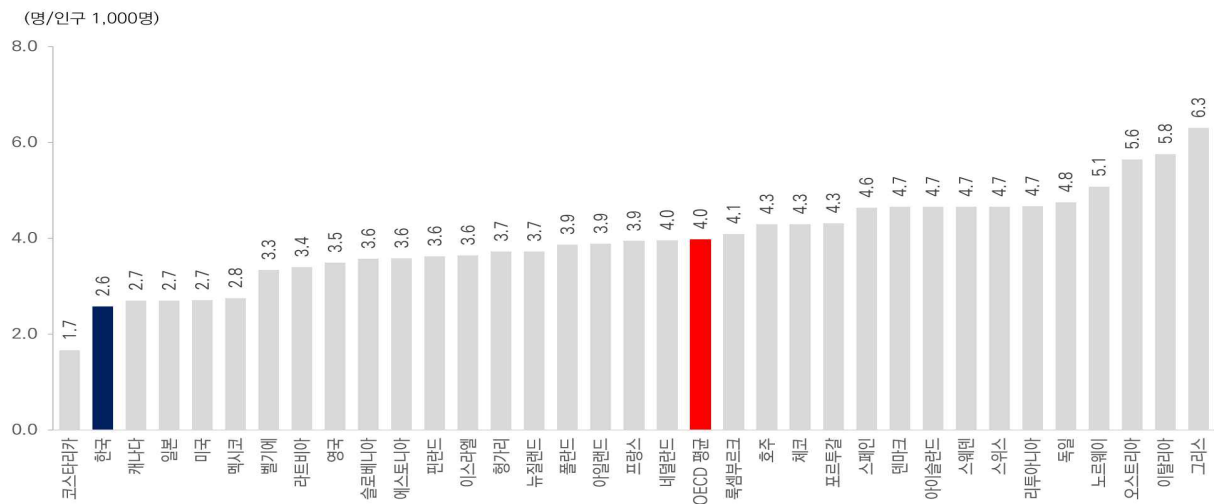
- (임상 의사 수) 2024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게 적었다.
-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그리스(6.3명)와 이탈리아(5.8명)이고, 임상 의사가 적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7명), 한국(2.6명), 캐나다(2.7명), 일본(2.7명), 미국(2.7명), 멕시코(2.8명)이다.

< 임상 의사 수 (2024) >

(단위: 명/인구 1,000명)

	독일	영국	멕시코	미국('22)	일본	한국	OECD 평균
임상 의사 수	4.8	3.5	2.8	2.7	2.7	2.6	4.0

주: 미국은 2022년 수치임.



주: 미국은 2022년 수치임.

- (의학계열 졸업자 수) 2024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캐나다(7.0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다.

< 의학계열 졸업자 수 (2024) >

(단위: 명/인구 10만 명)

	멕시코	영국('22)	독일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 수	20.1	13.5	12.4	8.6	7.6	7.3	15.3

□ (임상 간호인력 수)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8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0.1명 많았다.

○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5.5명으로 OECD 평균(8.8명)보다 3.3명 적었다.

< 임상 간호인력 수 (2024) >

(단위: 명/인구 1,000명)

	스위스	일본	독일	한국	영국	멕시코	OECD 평균
간호인력 전체	19.0	12.6	12.5	9.8	9.3	3.1	9.7
간호사	12.2	10.7	12.5	5.5	7.6	1.9	8.8

□ (간호대학 졸업자 수) 2024년 우리나라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45.5명으로 OECD 평균(34.7명)보다 10.8명 많았다.

< 간호대학 졸업자 수 (2024) >

(단위: 명/인구 10만 명)

	호주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멕시코	OECD 평균
간호대학 졸업자 수	69.2	54.9	46.7	45.5	45.2	18.8	34.7

□ (병상수) 2024년 병원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5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4개로 OECD 평균(3.4개)의 약 2.2배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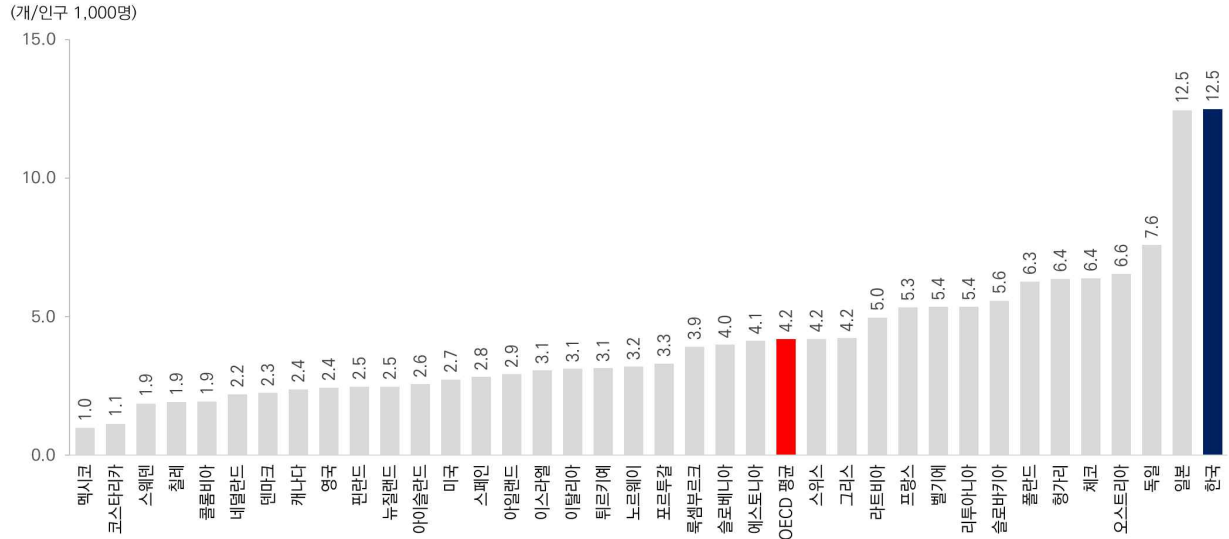
* 급성기 치료: 생명이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의 증상 완화, 질병이나 부상 통증의 감소, 부상이나 질병의 합병증 및 악화 방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 총 병원 병상수 (2024) >

(단위: 개/인구 1,000명)

	한국	일본	독일	미국('22)	영국	멕시코	OECD 평균
병상수	12.5	12.5	7.6	2.7	2.4	1.0	4.2
급성기 치료 병상수	7.4	-	5.7	2.5	-	-	3.4

주: 미국은 2022년 수치임.



주: 미국은 2022년, 아이슬란드는 2023년 수치임.

- (의료장비) 2024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9.3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인구 100만 명당 46.7대로 OECD 평균(MRI 21.5대, CT 31.5대)보다 많았다.

<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2024) >

(단위: 대/인구 100만 명)

	일본('23)	한국	미국('21)	독일	영국	멕시코	OECD 평균
MRI	59.8	39.3	38.0	37.9	9.0	2.9	21.5
CT	119.8	46.7	42.6	38.0	10.4	7.2	31.5

주: 미국은 2021년, 일본은 2023년 수치임.

4. 보건의료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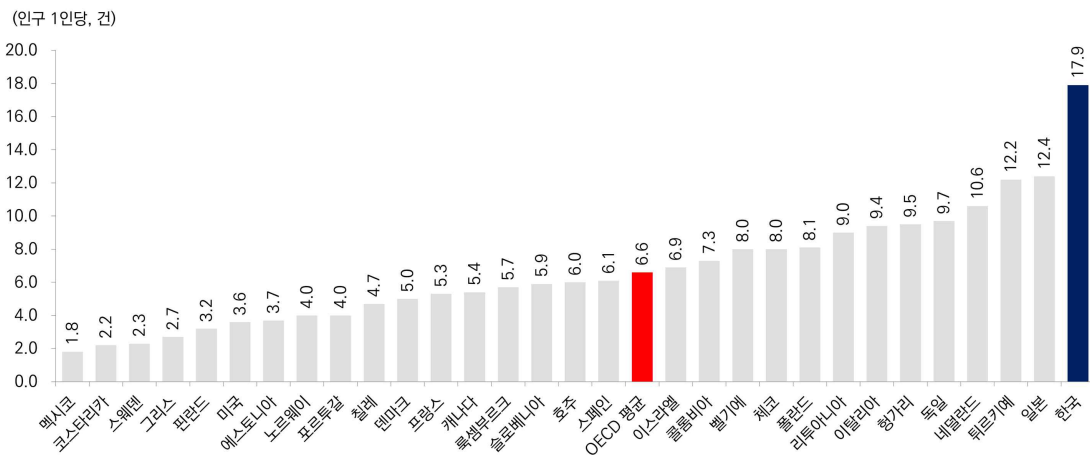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2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OECD 평균(6.6회)의 약 2.7배 수준이다.
- 일본(12.4회, 2023년)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멕시코(1.8회), 코스타리카(2.2회), 스웨덴(2.3회), 그리스(2.7회)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24) >

(단위: 인구 1인당, 건)

	한국	일본('23)	독일	호주	미국('23)	멕시코	OECD 평균
진료 횟수	17.9	12.4	9.7	6.0	3.6	1.8	6.6

주: 일본, 미국은 2023년 수치임.



주: 스위스는 2022년,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일본, 미국은 2023년 수치임.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2024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9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5.6일) 다음으로 길었다.

* OECD 평균: 7.9일

-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6.4일)보다 길었다.

< 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2024) >

(단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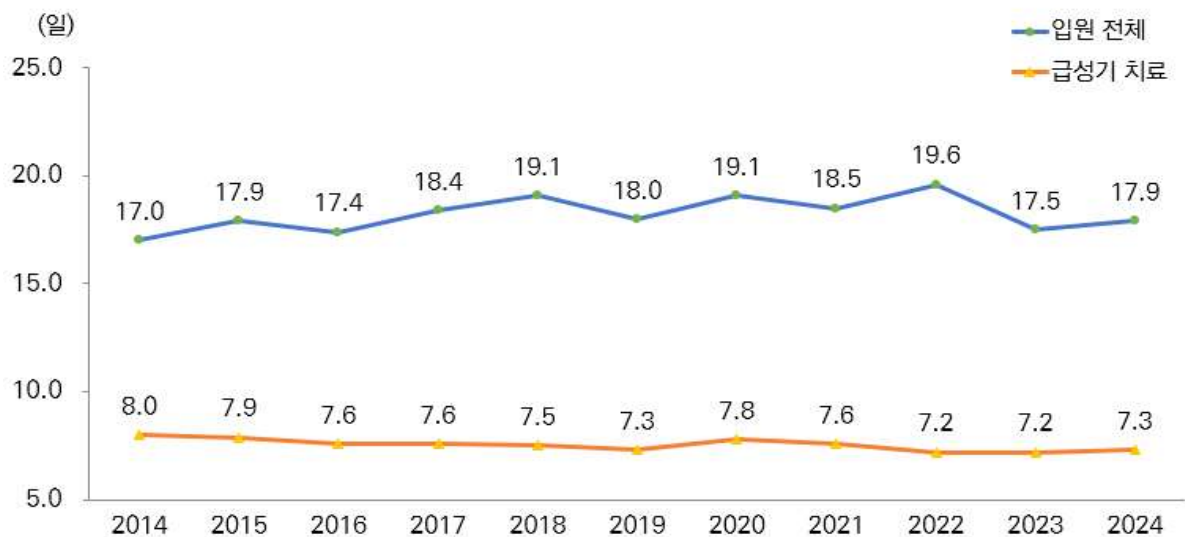
	일본	한국	독일	영국	미국('22)	멕시코	OECD 평균
입원 전체	25.6	17.9	9.0	8.9	6.6	4.7	7.9
급성기 치료	15.5	7.3	7.4	7.5	6.0	-	6.4

주: 미국은 2022년 수치임.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급성기 치료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입원 전체는 연평균 0.5% 증가하였고, 급성기 치료는 연평균 0.9%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 추이 (2014 ~ 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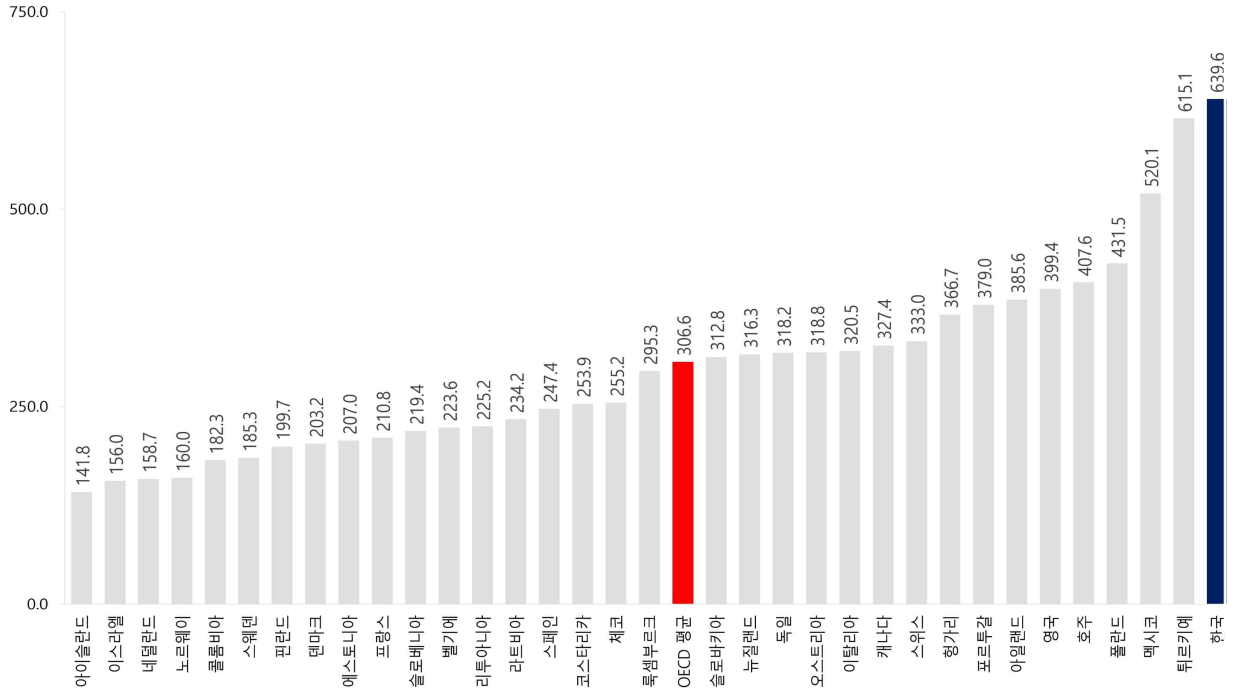
- (제왕절개 건수) 2023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639.6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OECD 평균(306.6건)의 약 2.1배 수준이다.

< 제왕절개 건수 (2023) >

(단위: 건/출생아 1,000명)

	한국	멕시코	영국	스위스	독일	일본	OECD 평균
제왕절개 건수	639.6	520.1	399.4	333.0	318.2	-	306.6

(건/출생아 1,000명)



□ (검사) 2024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83.2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고, 컴퓨터단층촬영(CT)은 인구 1,000명당 338.7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 주요 의료장비 이용량 (2024) >

(단위: 건/인구 1,000명)

	한국	미국('21)	호주	독일	칠레	일본	OECD 평균
MRI	83.2	107.5	54.9	166.6	48.8	-	94.8
CT	338.7	254.4	177.2	176.3	162.6	-	181.8

주: 미국은 2021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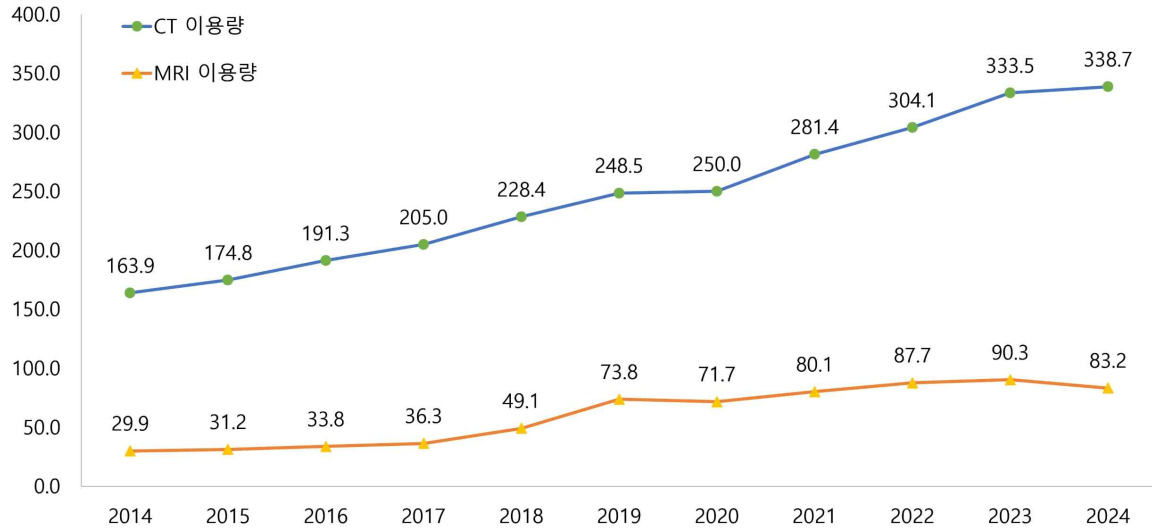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CT 및 MRI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CT 이용량은 연평균 7.5% 증가하였고, MRI 이용량은 연평균 10.8% 증가하였음.

* MRI 이용량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우리나라 주요 의료장비 이용량 추이 (2014 ~ 2024년) >

(건/인구 1,000명)



- (예방접종률) 202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83.4%로 OECD 국가 중 멕시코(85.9%) 다음으로 높았고, 이는 OECD 평균(49.7%)의 약 1.7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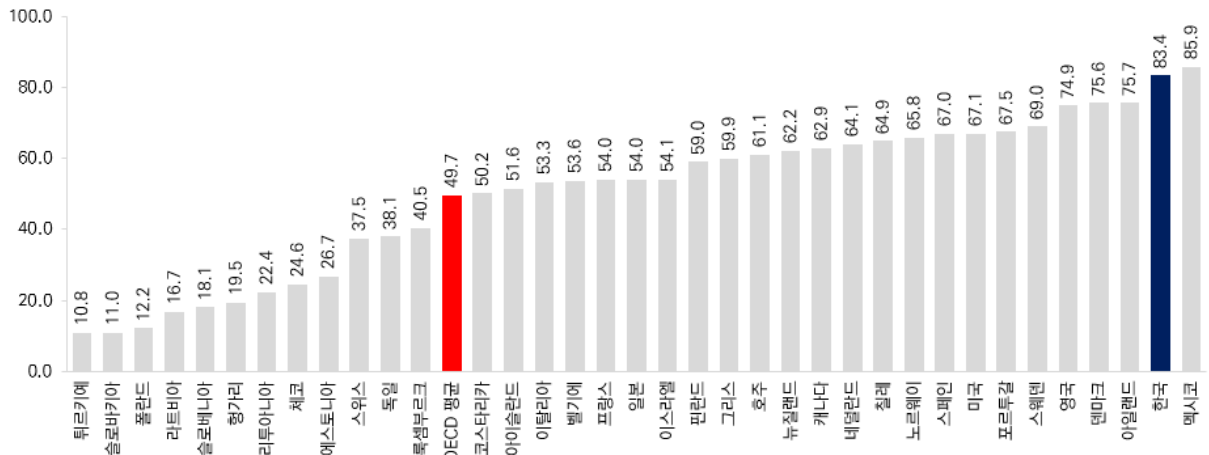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24) >

(단위: %, 65세 이상 인구)

	멕시코	한국	영국	미국	일본('23)	독일	OECD 평균
예방접종률	85.9	83.4	74.9	67.1	54.0	38.1	49.7

주: 일본은 2023년 수치임.

(%, 65세 이상 인구)



주: 스위스, 튀르키예는 2022년, 일본은 2023년 수치임.

5. 보건의료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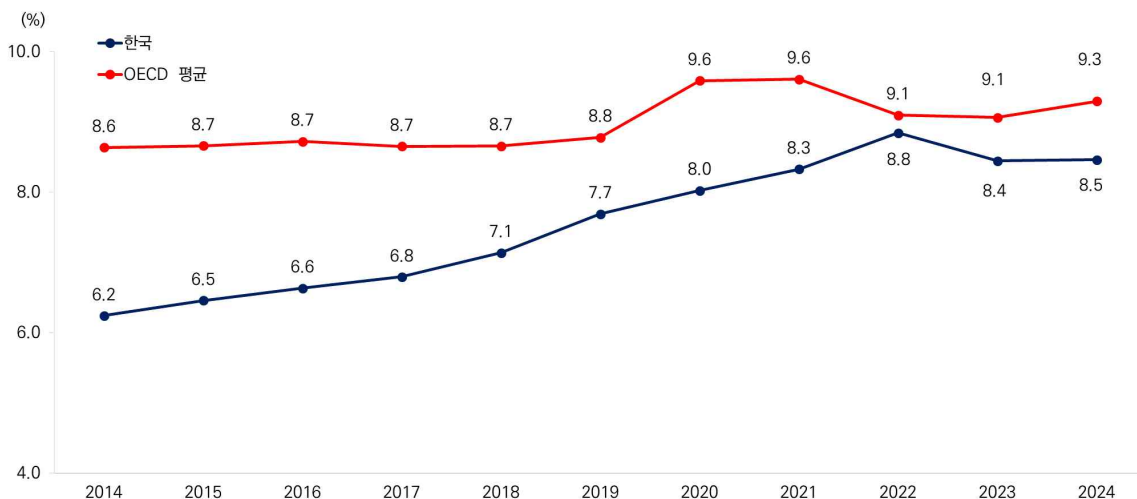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9.3%)보다 낮았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2024) >

(단위: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멕시코	OECD 평균
GDP 대비 경상의료비	17.2	12.2	11.1	10.3	8.5	6.1	9.3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2014~20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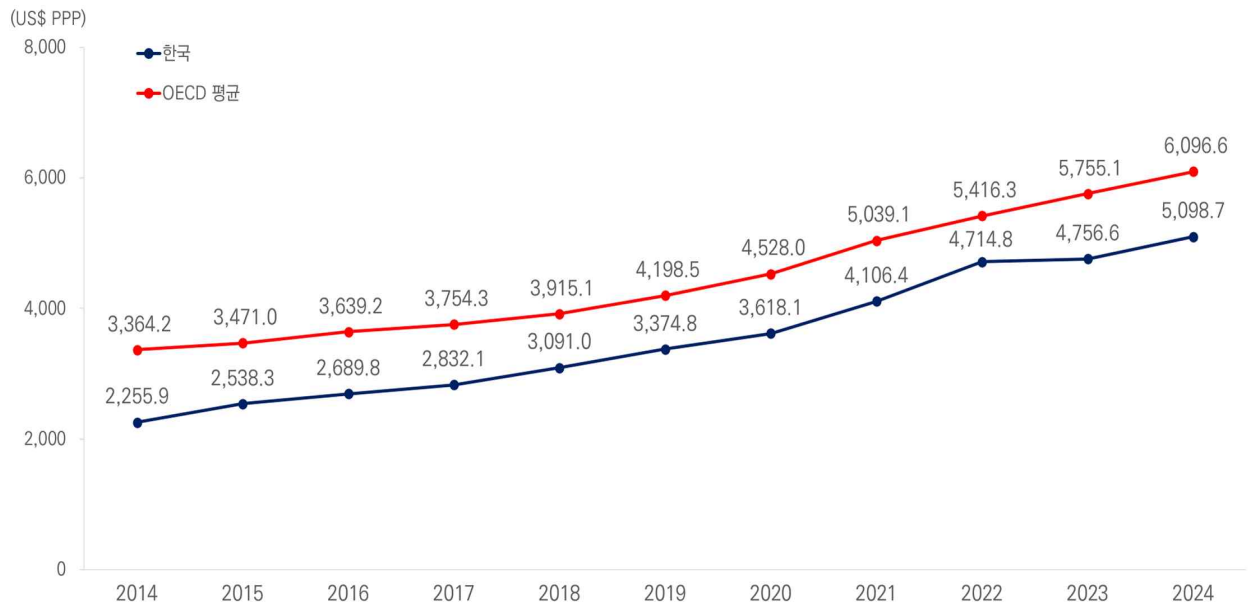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5,098.7US\$ 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5%씩 증가하여 OECD(6.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2024) >

(단위: US\$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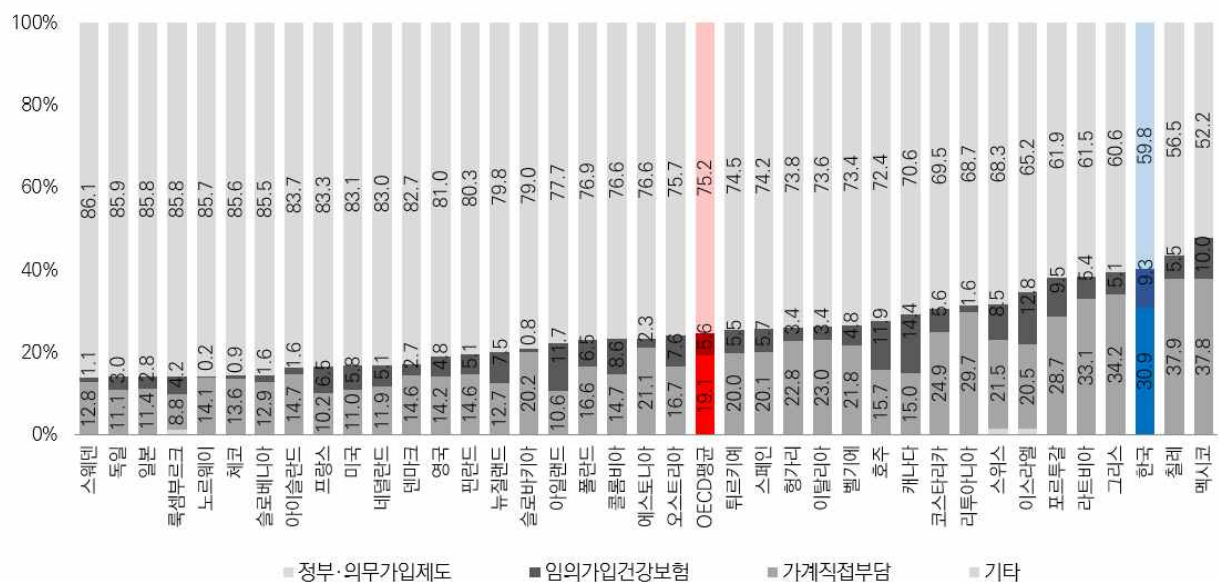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멕시코	OECD 평균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14,823.1	9,584.3	7,008.3	5,884.2	5,098.7	1,653.4	6,096.6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추이 (2014~2024년) >



- (재원 구성) 2024년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중은 59.8%로 OECD(75.2%)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0.9%로 OECD(19.1%)보다 높았으며 임의가입건강보험 등 그 밖의 재원이 9.3%를 차지했다.

< 경상의료비 재원별 비중 (20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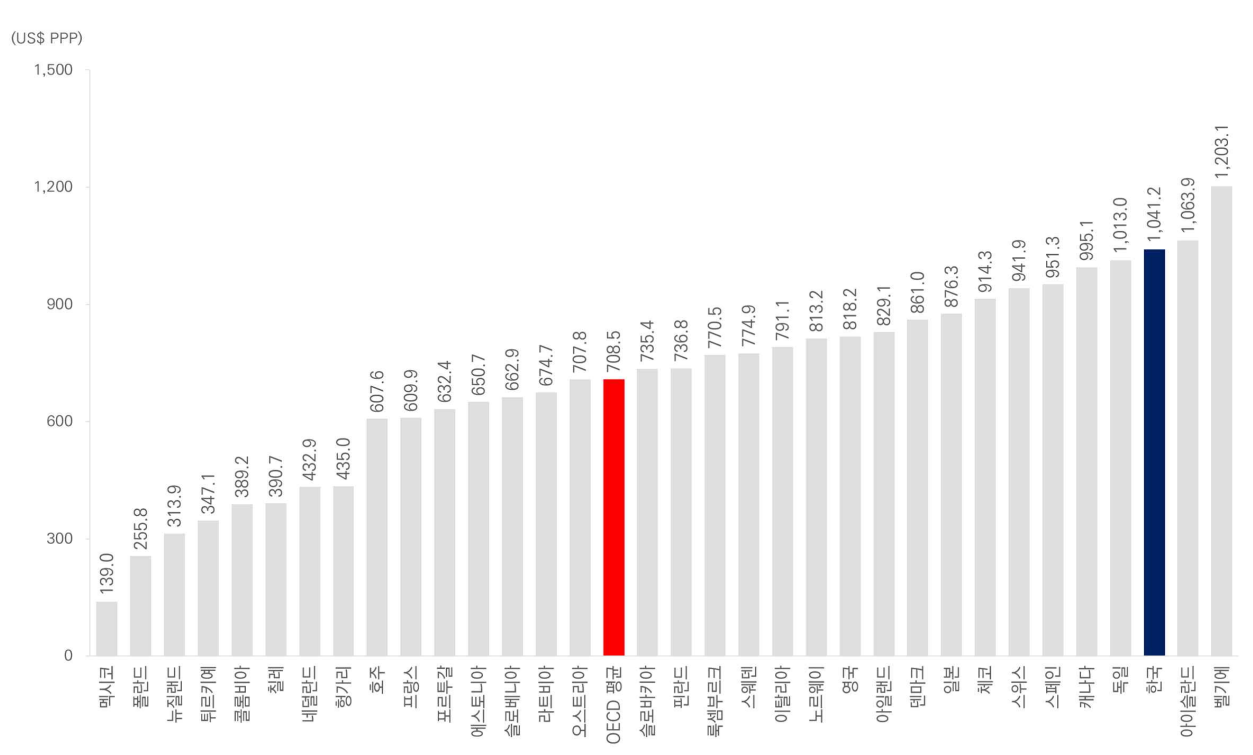
6. 의약품 시장

- (의약품 판매액) 202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1,041.2 US\$ PPP로, OECD 평균(708.5 US\$ PPP) 보다 332.7 US\$ PPP 높았다.
- 국가별로는 벨기에(1,203.1US\$ PPP), 아이슬란드(1,063.9US\$ PPP)의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 의약품 판매액 (2024) >

(단위: US\$ PPP)

	한국	독일	스위스	일본	영국	멕시코('23)	OECD 평균
의약품 판매액	1,041.2	1,013.0	941.9	876.3	818.2	139.0	708.5



주: 멕시코, 슬로베니아는 2023년 수치임.

7. 장기요양

□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2024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¹⁾ 비율은 재가 9.1%, 시설 2.7%로 OECD 평균 (재가 11.2%, 시설 3.6%)보다 낮았다.

○ 재가 수급자는 2014년 4.5%, 2019년 6.9%, 2024년 9.1%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시설 수급자는 2014년 2.5%, 2019년 2.7%, 2024년 2.7%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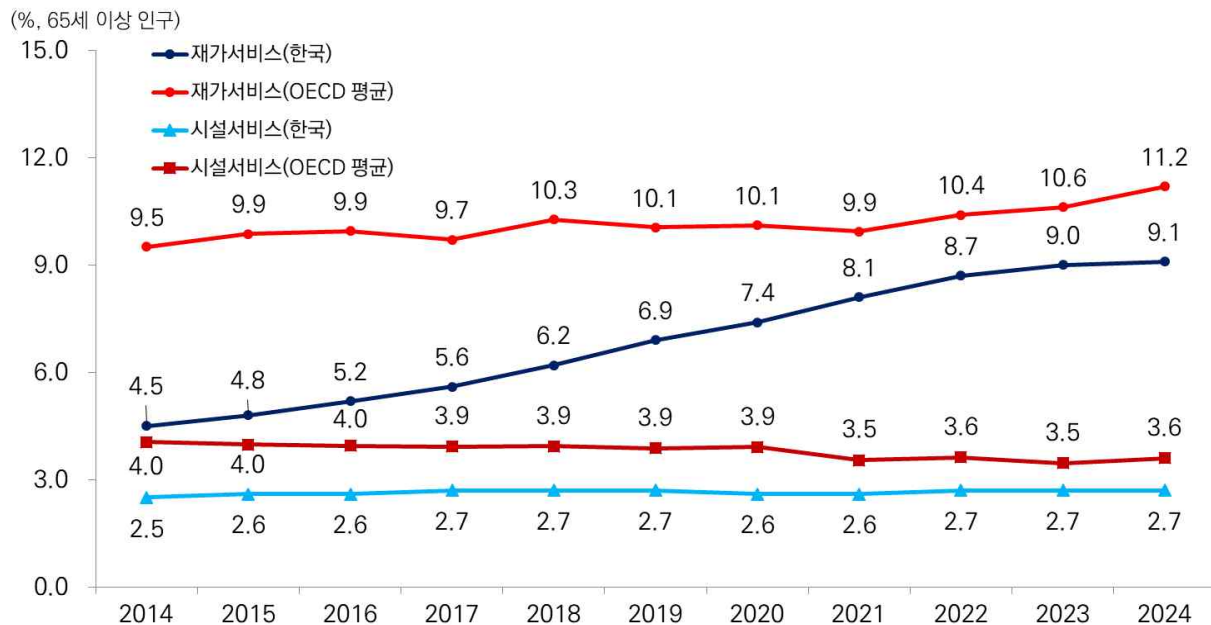
<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2024) >

(단위: %, 65세 이상 인구)

	호주	독일('23)	일본	한국	미국('22)	영국	OECD 평균
재가	10.6	20.0	-	9.1	-	-	11.2
시설	5.5	4.0	2.7	2.7	1.7	-	3.6

주: 미국은 2022년, 독일은 2023년 수치임.

<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재가·시설) 추이 (2014~2024년) >



1)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함. OECD는 시설과 재가를 구분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공표하고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국가는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수급한 경우에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2024년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4명으로 OECD 평균(5.4명)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 비교는 재가시설 구분 없이 전체값만 보고하는 스웨덴·스페인·체코 등을 제외함.

*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 ('14) 3.2명 ⇒ ('24) 5.4명

○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가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2.8명)와 이스라엘(11.3명)이다.

<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2024) >

(단위: 명/65세 이상 인구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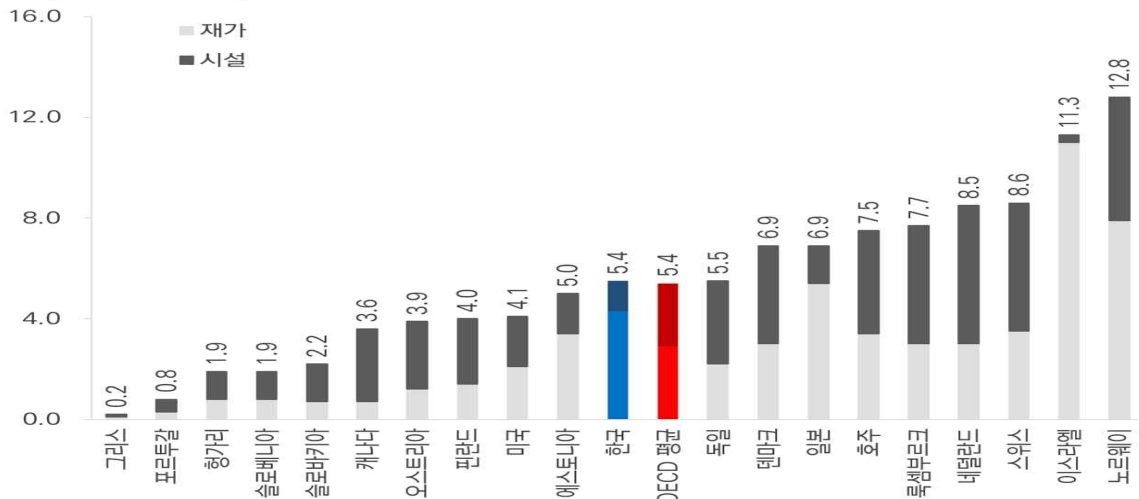
	호주('23)	일본	독일('23)	한국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총	7.5	6.9	5.5	5.4	4.1	-	5.4
재가	3.4	5.4	2.2	4.3	2.1	-	2.9
시설	4.1	1.5	3.3	1.2	2.0	-	2.5

주 1) 반올림으로 인해 세부 항목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호주, 독일은 2023년 수치임.

<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재가·시설) (2024) >

(명/65세 이상 인구 100명)



주 1) 그래프 수치는 재가서비스 제공 인력과 시설서비스 제공 인력의 합임.

2) OECD 평균은 2024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에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 인력 통계를 제출한 20개국의 평균임.

3) 그리스는 2021년, 호주, 덴마크, 독일은 2023년 수치임.

□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02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²⁾ 수의 합’은 51.2개로 집계되었다.

*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 (‘14) 58.1개 ⇒ (‘24) 5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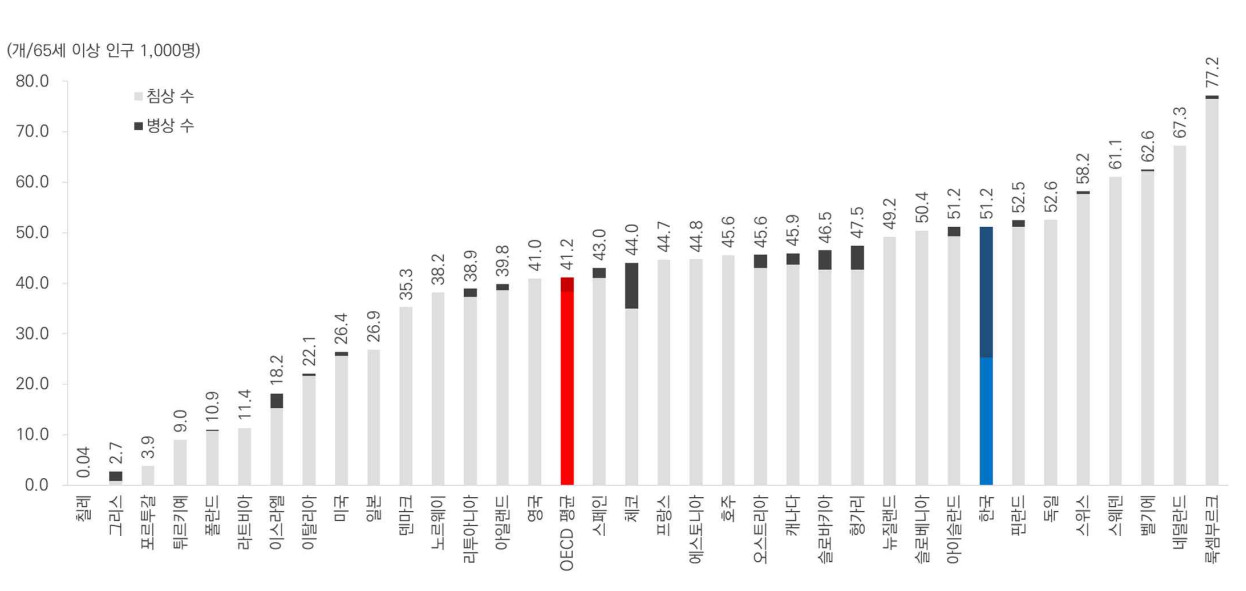
<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024) >

(단위: 개/65세 이상 1,000명)

	독일	한국	영국	일본	미국	멕시코	OECD 평균
병상 및 침상	52.6	51.2	41.0	26.9	26.4	-	41.2

주: OECD 평균은 병상(22개국)과 침상(34개국) 각각의 평균을 합산한 값임.

<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2024) >



- 주 1) 그래프 수치는 병상수와 침상 수의 합임.
- 2) 병상수의 OECD 평균은 2024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 통계가 있는 20개국, 침상 수는 34개국의 평균임.
- 3) 미국의 병상 및 침상 수는 2022년 수치,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의 병상 수는 2023년 수치임.

2) 거주형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보유한 침상을 의미함.

< 자료 활용 시 유의점 >

- 본 자료는 2026년 7월 9일 기준의 OECD DB*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https://data-explorer.oecd.org/>
-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24년을 기준 시점으로 함. 다만, 2024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과거 3개년까지 인접 정보로 대체함
- OECD는 2026년 7월 7일에 통계를 공표한 이후, 일부 수정·보완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추출 시점에 따라 보도자료의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 공표

- OECD는 매년 회원국으로부터 '보건통계'를 수집 후,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매년 7월 초 각국의 보건지표를 OECD 통계 포털*에 수록·공개('26. 7. 7.(화) 발표)

* OECD가 제공하는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제공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자료 제출

□ 통계 활용 및 수록 범위

-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통계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록통계)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수록
 - (산출기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협조로 산출·제공
- OECD는 매년 경제·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통계를 추가하고, 필요도가 낮아진 통계를 제외하여 요구 항목을 변경
 - 최근에는 통계생산 효율화를 위하여 OECD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EU 등이 공동으로 회원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추세

분야	지표명		한국	OECD 평균 ¹⁾	최대		최소	
건강수준	기대수명(년)		83.7	81.2	84.2	스위스	75.5	멕시코
	회피가능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명) ²⁾		139.0	208.8	412.0	라트비아	116.0	스위스
	자살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명) ²⁾		24.8	10.9	24.8	한국	4.5	그리스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2.4	4.2	16.5	콜롬비아('21)	1.4	에스토니아
건강 위험요인 (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흡연율(15세 이상 인구, %)		13.2	12.7	28.3	튀르키예('22)	5.6	아이슬란드
	주류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l)		7.6	8.3	11.9	포르투갈('22)	1.7	튀르키예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 (15세 이상 인구, %)		37.3	58.7	72.4	멕시코	25.3	일본
보건의료 자원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2.6	4.0	6.3	그리스	1.7	코스타리카
	의학계열 졸업자 수(인구 십만 명당, 명)		7.3	15.3	30.9	라트비아	7.0	캐나다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천 명당, 명)		9.8	9.7	19.0	스위스	1.0	코스타리카
	간호대학 졸업자 수(인구 십만 명당, 명)		45.5	34.7	81.1	핀란드	4.3	슬로베니아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12.5	4.2	12.5	한국	1.0	멕시코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39.3	21.5	59.8	일본('23)	2.9	멕시코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46.7	31.5	119.8	일본('23)	7.2	멕시코
보건의료 이용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인구 1인당, 건)		17.9	6.6	17.9	한국	1.8	멕시코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병원 입원환자 1인당, 일)		17.9	7.9	25.6	일본	4.2	튀르키예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병원 입원환자 1인당, 일)		7.3	6.4	15.5	일본	4.2	튀르키예
	제왕절개 건수(출생아 천 명당, 건) ²⁾		639.6	306.6	639.6	한국	141.8	아이슬란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 (인구 천 명당, 건)		83.2	94.8	169.3	룩셈부르크	4.3	코스타리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건수 (인구 천 명당, 건)		338.7	181.8	338.7	한국	61.8	코스타리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5세 이상 인구, %)		83.4	49.7	85.9	멕시코	10.8	튀르키예
보건의료 비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8.5	9.3	17.2	미국	4.9	튀르키예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5,098.7	6,096.6	14,823.1	미국	1,653.4	멕시코
의약품	의약품 판매액(US \$PPP)		1,041.2	708.5	1,203.1	벨기에	139.0	멕시코('23)
장기요양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 (65세 이상 인구, %)	재가	9.1	11.2	34.5	리투아니아	0.6	포르투갈
		시설	2.7	3.6	12.7	리투아니아	0.1	그리스('23)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 (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명)		5.4	5.4	12.8	노르웨이	0.2	그리스('21)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개)		51.2	41.2	77.2	룩셈부르크	0.04	칠레

주 1) 2024년 기준임. 다만, 2024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과거 3개년까지 인접 정보로 대체 함.

2) OECD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함.

※ 본 자료는 「OECD Health Statistics 2026」에 수록된 보건통계지표 중 사회적 관심이 높고,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제출하여 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선정하여 정리함.

붙임 4

주요 지표 작성 기관

분야	지표명	작성 기관
건강수준	기대수명(년)	국가데이터처
	회피가능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명)	
	자살사망률(인구 십만 명당, 명)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건강 위험요인 (건강의 비의료 결정요인)	흡연율(15세 이상 인구, %)	질병관리청
	주류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¹⁾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질병관리청
보건의료자원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학계열 졸업자 수(인구 십만 명당,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²⁾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천 명당, 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대학 졸업자 수(인구 십만 명당,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²⁾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보건복지부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인구 백만 명당, 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인구 백만 명당, 대)	
보건의료이용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인구 1인당, 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재원일수 (병원 입원환자 1인당, 일)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재원일수 (병원 입원환자 1인당, 일)	
	제왕절개 건수(출생아 천 명당,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건수(인구 천 명당, 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수(인구 천 명당, 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65세 이상 인구, %)	질병관리청
보건의료비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의약품	의약품 판매액(US\$ PPP)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기요양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65세 이상 인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명)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 1) 주류 소비량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가공하여 산출함.

2) 의학계열 및 간호대학 졸업자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를 가공하여 산출함.